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42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5.05.22.~2025.05.28

①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②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6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0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대통령(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대선, 유세), 지하수, 교사, 관광객, 제주포럼
경제·관광	교사, 관광객, 마늘, 소비, 크루즈
지역·사회	교사, 민원, 학생, 대통령, 지하수

※ 분석 기간 : 25.05.22.~25.05.28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대통령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대선, 유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명 후보, 제주 유세 및 공약 발표 - 김문수 후보, 제주 방문 일정 변경 및 논란 - 대선 막판, 제주 표심잡기 총력 및 사전투표 독려
	지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 증량 신청 조건부 가결 - 지하수 증산 결정에 시민단체 강력 반발 - 지하수 증량, 도의회 최종 동의 절차 남아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악성 민원 관련 의혹 - 교권 보호 시스템 실효성 논란 및 개선 요구 - 전국적 추모 물결 및 교육계 자성 목소리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관광객 유치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시행 - 개별 관광객 유치 위한 '디지털 관광증' 및 할인 혜택 - 제주 야간관광 활성화 필요성 대두
	제주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회 제주포럼 개막 및 주요 내용 - 제주포럼, JDC 주관 면세 및 헬스케어 산업 논의 - 제주포럼 4·3 세션, 과거사 재현과 책임 논의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민원 대응팀 운영 실효성 논란 - 교권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요구 - 故 현승준 교사 추모 및 진상 규명 촉구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대폭 강화 - 제주 야간관광 소비 패턴 분석 및 활성화 과제 - 싱가포르 관광객 유치 위한 맞춤형 마케팅 전개
	마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산 마늘 수매가 상승 속 농가 우려 교차 - 마늘 농작업 기계화 및 재배 환경 개선 시급 - 제주 마늘 재배 면적 지속 감소세 심화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소비자심리지수, 12·3 계엄 이전 수준 회복 - 제주 신혼부부 소득 증가 속 부채 부담 가중 - 제주 야간관광 소비 활성화 및 콘텐츠 다양화 시급
	크루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크루즈 관광 활성화 위한 정부·지자체 협력 강화 - 강정항-원도심 연계 680번 버스 신설 운행 - 제주지역 크루즈 전문 인력 양성 본격화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발생 - 제주 고교 교사 폭행 사건 발생 - 교직원 아동학대 집단 고소 사건
	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대상 악성 민원 심각 -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 부실 지적 - 경찰, 교사 사망 관련 민원인 조사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생 교사 폭행 사건 발생 - 제주대 의대생 출석률 저조 및 유급 사태 - 교사 사망 사건 관련 학생 심리 지원
	대통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선 후보 제주 현안 입장 공개 - 더불어민주당,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선 공약 채택 - 이재명 후보 제주 유세 중 온열질환자 발생
	지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진그룹, 제주 지하수 증산 신청 조건부 가결 - 시민사회단체, 한진 지하수 증산 규탄 - 지하수 공공관리 원칙 훼손 우려 지속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5년 5월 21일~5월 28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1264건임
 - 정치·행정 분야 504건, 경제·관광 339건, 지역·사회 421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대통령(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대선, 유세), 지하수, 교사, 관광객, 제주포럼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대통령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대선, 유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명 후보, 제주 유세 및 공약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난 22일 제주 방문 유세에서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 및 제주 재생에너지 산업 선도 등을 약속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대선 정책공약집에 공식 채택, 주민투표를 통한 추진 방식 명시 · 제주 유세에는 배우 박혁권과 제주 출신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찬조 연설자로 나서 지지를 호소함. 이 후보는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의지를 표명하며, 제주를 평화와 화해의 상징으로 언급
-------	--	---

	<p>대통령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대선, 유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문수 후보, 제주 방문 일정 변경 및 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당초 28일 예정됐던 제주 유세 일정을 대선 전 날인 6월 2일로 변경함. 과거 제주 4·3 관련 '공산 폭동' 발언 등으로 지역 사회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제주 방문 시 사과와 입장 표명 요구가 제기 · 국민의힘 제주선대위는 김 후보의 4·3 관련 공약으로 고령 유족 요양병원 건립, 국립트라우마센터 국비 지원 등을 발표하고, 4·3 단체와 정책 간담회를 진행 - 대선 막판, 제주 표심잡기 총력 및 사전투표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5월 29~30일)를 앞두고 각 정당 제주선대위가 총력 유세전을 펼치며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공략에 나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등 각 정당은 제주 오일시장, 주요 교차로 등에서 유세를 벌이며 투표 참여를 독려 ·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안팎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서는 양상을 보임. 한편, 보수 후보 단일화는 이준석 후보의 완주 의사 표명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
<p>정치·행정</p>	<p>지하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 증량 신청 조건부 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제조 위한 지하수 취수량 증량 신청(월 3000톤→4500톤)을 심사함. 기내 공급용 외 사무실 사용분 100톤을 감량한 월 4400톤으로 조건부 가결 · 위원회는 법적 하자 없고, 표선 수역 여유량 충분해 지하수 자원 영향 미미하다고 판단함. 한국공항 측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른 기내 음용수 수요 증가를 증량 이유로 제시 - 지하수 증산 결정에 시민단체 강력 반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조건부 가결에 "제주 지하수 공수 관리 정책 후퇴"라며 강력 규탄함. 이들은 오영훈 도정이 대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지하수 사유화를 확대하려 한다고 비판 · 시민단체들은 지하수 증산의 본질은 개발 수역의 지하수 영향 문제를 넘어 제주도 지하수 공공관리 원칙 훼손 여부에 있다고 주장함. 제주도의회에 지하수 공공 정책을 바로잡는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것을 당부 - 지하수 증량, 도의회 최종 동의 절차 남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라 제주도의회의 최종 동의를 받아야 확정됨. 과거 수차례 증산 시도가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만큼 이번 결과에 귀추가 주목 · 제주도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도 불구하고, 한국공항은 법 시행 이전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먹는샘물 생산이 가능함. 지역사회에서는 경제적 효과와 공공자원 보존 사이의 균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존
	<p>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악성 민원 관련 의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한 중학교 40대 교사, 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됨. 유서에는 학생 가족으로부터의 민원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짐. 해당 교사는

<p>정치·행정</p>		<p>무단결석 및 흡연 문제로 학생을 지도한 후 수개월간 밤낮없는 항의 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전담팀 구성해 내사 착수. 학생 가족 휴대전화 포렌식 의뢰 등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 파악 중. 교육계와 시민사회,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p>- 교권 보호 시스템 실효성 논란 및 개선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교사, 학교 민원대응팀이나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등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서이초 사건 이후 마련된 교권 보호 대책의 현장 작동 미흡 비판 제기 · 교원단체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 위한 실질적 대책과 교사 개인정보 보호 강화, 온라인 교육 플랫폼 도입 등 제도 개선 요구함.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민원 대응 체계 운영 실태 점검 및 보완 계획 밝힘 <p>- 전국적 추모 물결 및 교육계 자성 목소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교육청, 사망 교사 추모 분향소 운영 기간 연장. 전국 교사 및 시민들의 조문 이어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 전국교사결의대회 열고 고인 추모하며 교육 현실 변화 촉구 · 사망 교사의 제자들, 추모 글 통해 고인의 열정과 헌신 기리며 안타까움 표현. 교육계 내부에서는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고립된 민원 대응 현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강조
	<p>관광객</p>	<p>- 제주 관광객 유치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관광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의 선물'이라는 대국민 여행 지원 사업 본격 추진함. 제주도의회, 관련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 수학여행단(학교별 최대 100만원), 15인 이상 동창회·동호회(1인당 3만원, 단체당 최대 200만원), 20인 이상 자매결연·협약단체(1인당 3만원, 단체당 최대 600만원) 등에 여행 경비 지원 <p>- 개별 관광객 유치 위한 '디지털 관광증' 및 할인 혜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여행객 대상 디지털 관광증과 연계해 추첨으로 지역화폐 '탐나는전' 지급(최대 5만원). 제주형 투어패스를 활용한 할인 이벤트 병행 추진하여 관광객 편의성 제고 및 지역 관광업계 매출 증대 도모 · '2025 대한민국 여름맛이 숙박세일 페스타' 지역특별기획전 통해 7만원 이상 제주 숙박상품 구매 시 5만원 할인쿠폰 제공 <p>- 제주 야간관광 활성화 필요성 대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관광공사 보고서, 제주 방문 관광객 소비 37.9%가 야간에 발생하나 인프라 부족 지적함. 내국인은 저녁 식사 후 숙소 복귀, 외국인은 카지노 등 일부 지역 소비 편중 현상 나타남 · 야간 볼거리·즐길거리 부족으로 관광객 소비 시간 확대에 한계. 야간관광 생태계 조성 및 콘텐츠 개발 필요성 제기
	<p>제주포럼</p>	<p>- 제20회 제주포럼 개막 및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혁신'을 주제로 제20회 제주포럼, 5월 28일부터

<p>정치·행정</p>	<p>제주포럼</p>	<p>30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됨. 전 세계 30여 개국 4000여 명 참가, 외교·안보, 기후·환경, 경제 등 총 53개 세션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식에는 오영훈 제주지사,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영상),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영상) 등 국내외 주요 인사 참여. 세계평화의 섬 지정 20주년 특별 세션, 청년 선언문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제주포럼, JDC 주관 면세 및 헬스케어 산업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DC, 제주포럼에서 '글로벌 면세 시장 변화와 제주 면세산업 경쟁력 제고' 세션 운영. 제주 지정면세점 활성화 위해 면세·구매한도 상향, 이용횟수 확대, 온라인 판매 허용 등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 '새로운 기회 웰니스 산업: 제주헬스케어타운이 나아가길 방향' 세션에서 AI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 및 '인바이츠 루프' 전략 제시 - 제주포럼 4·3 세션, 과거사 재현과 책임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4·3연구소 주관, '과거에 연루되기: 재현·책임·윤리' 주제로 4·3 세션 개최. 다니엘라 필커 감독, 다큐멘터리 <사령관의 그림자> 소개하며 가해자 측 서사 포함한 과거사 재현의 중요성 강조 · 역사 재현의 심미화 경계, 진실 규명을 통한 새로운 집단기억 형성, 세대 간 기억 전승 방안 등 논의됨. 국가폭력 트라우마의 사회적 치유 확장 필요성 강조
--------------	-------------	--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교사**, **관광객**, **마늘**, **소비**, **크루즈**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민원 대응팀 운영 실효성 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교육청, 교권 보호 강화 목적으로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민원 대응팀' 운영 개선안 발표.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학교 관리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사 업무 부담 경감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의도 · 최근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현행 민원 대응팀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과 현장 작동 미흡 사례 지적됨. 학교 및 교육청의 소극적 대처로 인해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고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 발생 - 교권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권 추락 문제와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 교원 단체들, 악성 민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교사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법적 장치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촉구 · 국회에서 '교권 보호 5법' 등이 통과되어 시행 중이나, 교육 현장 교사들의 체감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 교사들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온라인 소통 민원 시스템의 조속한 구축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 요구 - 故 현승준 교사 추모 및 진상 규명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故 현승준 교사에 대한 전국적인 추모 물결 확산. 제주도교육청, 청사 앞마당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운영 기간을 연장하며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 애도의 뜻을 함께함 · 경찰 당국,故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중심으로 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함. 학교 관계자 및 학생 가족 등 관련자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유족과 교원 단체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순직 인정을 강력히 요구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대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 침체된 관광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주의 선물' 프로젝트 본격 시행. 수학여행단 안전요원 고용비 지원 및 학교별 지원금 최대 100만원 상향, 일반 단체 지원 대상을 여행사 중심에서 동창회·동호회(15명 이상 시 1인당 3만원, 최대 200만원) 등으로 대폭 확대 · 개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디지털 관광증과 연계한 지역화폐 '탐나는전' 추첨 지급 및 제주형 투어패스 할인 이벤트 병행 추진. 6월부터 본격 시행하여 여름 성수기 및 비수기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동시 기대 - 제주 야간관광 소비 패턴 분석 및 활성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관광공사, 2024년 여름철(7~8월) 카드 소비 및 내비게이션 데이터 기반 야간 관광 패턴 분석 보고서 발간. 야간 시간대(오후 6시~익일 오전 6시) 소비 금액, 전체 관광 소비의 37.9% 차지하며 건당 소비액은 주간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 · 내국인 관광객은 음식점업, 외국인 관광객은 숙박업(카지노) 중심의 야간 소비 행태를 보이며 뚜렷한 차이 발생. 특히 외국인의 심야 소비가 카지노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다양한 야간관광 콘텐츠 부족 및 활성화 필요성 대두

경제·관광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관광객 유치 위한 맞춤형 마케팅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동남아 전략시장인 싱가포르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현지 맞춤형 홍보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 '싱가포르 K-관광로드쇼' 참가하여 현지 주요 여행사들과 제주 관광상품 개발 협력 타진 및 제주 관광 홍보부스 운영으로 매력적인 콘텐츠 소개 · '제주-싱가포르 관광업계 간 B2B 트래블마트'를 메종 글래드 제주에서 개최하여 구체적인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 협업 방안 논의. 싱가포르 주요 여행사 및 현지 미디어 초청 팸투어 진행
	마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산 마늘 수매가 상승 속 농가 우려 교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산 제주 마늘 수매 본격 시작, 전국 마늘 가격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대정농협이 상품 기준 kg당 4300원으로 수매가 결정. 이는 지난해보다 500원 오른 가격이며, 2022년(4400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높은 수준으로 기록 · 올해 작황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전국적인 마늘 재고량 부족이 수매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그러나 농가들은 인건비 등 생산비 상승과 함께 중국산 마늘 수입 물량 공세에 따른 가격 하락 및 수익성 악화에 대한 깊은 우려감을 표명 - 마늘 농작업 기계화 및 재배 환경 개선 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마늘 농가, 고령화 심화와 농촌 노동력 부족, 낮은 기계화율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마늘 재배의 어려움 가중. 이에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마늘 기계화 수확 시범 및 현장 실습 교육 실시하여 관행 재배 대비 경영비 절감 효과 확인 · 제주 지역의 자갈 많은 토질과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육지부 농기계가 기계화 촉진의 걸림돌로 작용. 제주 재배 환경에 적합하면서도 가격 경쟁력 있는 맞춤형 농기계 개발 및 보급,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재배를 위한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 마련 시급 - 제주 마늘 재배 면적 지속 감소세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지역 마늘 재배 면적이 최근 몇 년 사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감소하며 위기감 고조. 2020년 1879ha에서 2024년 1088ha로 줄었으며, 올해 예상 면적은 909ha로 2020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최대 주산지인 대정농협의 경우 올해 재배 면적이 605ha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 제주 특산품인 남도종 마늘의 수요 감소와 기계화 어려움, 인건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농가들이 마늘 농사를 포기하고 타 작물로 전환하는 사례 증가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소비자심리지수, 12·3 계엄 이전 수준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5.4로 전월 대비 7.7포인트 큰 폭으로 상승하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해 11월(95.6) 수준을 거의 회복함. 이는 5개월 만의 최고치이며, 두 달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감 · 이러한 심리 개선은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및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됨. 다만, 기준값(10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해 소비 심리는 비관적 국면에 머무르고 있으며, 전국 지수(101.8)보다는 낮은 수준 - 제주 신혼부부 소득 증가 속 부채 부담 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기준 제주지역 신혼부부 수는 1만3831쌍으로 4년 전인 2019년(1만7682쌍) 대비 21.8% 크게 감소. 맞벌이 부부 비중은 45.9%에서 52.6%로

	<p style="text-align: center;">소비</p>	<p>증가하며 가구 평균 소득은 4230만원에서 5019만원으로 18.7% 늘어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 비중은 43.1%에서 47.6%로 소폭 상승했으나, 금융기관 대출 보유 비중 역시 83.9%에서 86%로 증가. 대출 잔액 중앙값은 7933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51.3% 급증했으며, 1억원 이상 고액 대출자 비중도 55.4%로 절반을 초과 <p>- 제주 야간관광 소비 활성화 및 콘텐츠 다양화 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여름철(7~8월) 제주 관광객의 야간 시간대(오후 6시~익일 오전 6시) 소비 금액이 전체 관광 소비의 37.9%를 차지. 특히 건당 소비금액은 약 15만 8000원으로, 모든 야간 시간대에서 평균을 초과하며 주간 대비 더 큰 소비 규모와 씬씀이를 보임 · 내국인 관광객은 주로 음식점업에서, 외국인 관광객은 숙박업(카지노)에서 야간 소비가 집중되는 뚜렷한 차이 확인. 특히 외국인 심야 소비가 카지노가 위치한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다양한 야간관광 콘텐츠 부족 및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성 대두
<p style="text-align: center;">경제·관광</p>	<p style="text-align: center;">크루즈</p>	<p>- 제주 크루즈 관광 활성화 위한 정부-지자체 협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 제주를 포함한 국내 7대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각 기항지별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 및 수용 태세 점검·개선을 통해 크루즈 방한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대한민국 지역관광 매력 선사 계획.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도시'를 테마로 브랜드화 추진 · 지난해 크루즈 관광객 27만 4000명에서 올해 81만 6000명으로 약 3배 증가 전망. 제주도는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파급 효과 극대화를 위해 터미널 시설 개선, 탄력적 인력 배치 등 운영 효율화 방안 지속 협의 및 지원 강화 방침 <p>- 강정항-원도심 연계 680번 버스 신설 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시, 강정크루즈터미널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680번 시내버스 노선을 5월 28일부터 신설 운행. 올해 강정항 크루즈 입항 200회, 관광객 60만명 이상 예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편의 개선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 도모 목적 · 해당 노선은 매일 오전 7시 20분(보목포구 출발) 또는 오전 8시 30분(강정항 출발)부터 오후 8시 10분까지 1~2시간 간격으로 총 10회 운행. 중앙로터리, 서복전시관, 이중섭거리 등 주요 관광지를 경유하며, 기존 매일올레시장 외 동문로터리, 자구리공원 등에도 크루즈 전용 셔틀버스 승하차 구역 추가 마련 <p>- 제주지역 크루즈 전문 인력 양성 본격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와 협력하여 크루즈 준모항 시대에 대비한 해양 관광산업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난해 '해양 크루즈 관광 사업론' 교과목을 처음 개설하여 이론 교육과 함께 크루즈 전문가 특강 및 국제 크루즈선 승선 체험(쉽투어) 병행 · 실제 크루즈 항해사 및 선사 대리점 대표 등을 초청하여 현장감 있는 강의 진행 및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최근 중국 상하이-제주-일본을 운항하는 아도라 매직시티 크루즈선에 학생들이 직접 승선하여 현장을 답사하고 관계자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등 실무 중심 교육 강화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교사, 민원, 학생, 대통령, 지하수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모 중학교 40대 교사, 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되어 경찰 수사 착수. 유족 및 동료 교사들, 고인이 학생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고 주장 · 교육계 및 시민사회,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하며 추모 물결 확산. 제주도교육청, 분향소 마련 및 운영 기간 연장 - 제주 고교 교사 폭행 사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모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사건 발생. 경찰, 해당 학생 입건 후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 중 · 피해 교사 병가 중이며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제주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 및 해당 학생 징계 수위 논의 예정 - 교직원 아동학대 집단 고소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생 학부모, 자녀의 초등학교 재학 시절 정신적 충격으로 지병 발현 주장하며 교직원 10명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 경찰, 학부모의 협박성 발언 및 반복적 민원 제기 정황 포착하여 협박 등 혐의로 조사 중. 교육청, 피해 교직원 보호 조치 및 법률 지원
-------	----	--

지역·사회	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대상 악성 민원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숨진 중학교 교사, 학생 생활지도 관련 학부모로부터 수개월간 밤낮없는 항의 전화와 과도한 민원에 시달린 정황 드러남 · 교직원 집단 고소 사건의 학부모 또한 "죽이겠다" 등 협박성 발언과 함께 교육청, 학교 등에 반복적인 민원 제기 -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 부실 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사망 사건 관련, 학교의 민원 대응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교사가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했다는 비판 제기 · 교육부, 서이초 사건 이후 마련된 교권 보호 대책 현장 작동 여부 점검 및 보완 방안 모색 예정 - 경찰, 교사 사망 관련 민원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숨진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 휴대전화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 진행 등 본격 수사 · 수사 전담팀 구성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2차 피해 방지에 주력. 향후 민원인뿐 아니라 학교 관계자 처벌 여부도 검토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생 교사 폭행 사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특성화고 남학생, 수업 중 여교사 주먹으로 폭행. 경찰, 폭행 혐의로 학생 입건 조사 · 제주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열어 해당 학생 징계 수위(교내봉사부터 퇴학까지) 심의 예정 - 제주대 의대생 출석률 저조 및 유급 사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2025학년 1학기 일부 강의 출석률 10% 미만 기록. 의학과 2학년 3명 유급 처분 · 전국 40개 의대생 42.6% 유급 대상 확인. 교육부, 계절학기·2학기 수강 통해 진급 지원 및 교육 질 저하 방지책 강구 약속 - 교사 사망 사건 관련 학생 심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교사 사망 사건으로 인한 학생들의 2차 피해 최소화 노력. 교육당국과 협력하여 학생 심리상담 지원 · 학생 조사 필요시 교육청과 신중히 협의하여 진행할 계획
	대통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선 후보 제주 현안 입장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각 정당 대선 후보 대상 정책 질의 답변 공개. 이재명·권영국 후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및 제2공항 도민결정권 찬성 · 국민의힘(제주도당 입장), 행정체제 개편 및 제2공항 도민결정권 반대. 개혁신당 답변 미제출 - 더불어민주당,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선 공약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과제 포함 · 주민투표를 통해 기존 행정시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목표 명시.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위한 사무 발굴 및 재정지원 강화 약속

지역·사회	대통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명 후보 제주 유세 중 온열질환자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제주지역 유세 현장(제주시 일도동 탐라 문화광장)에서 60대 남성 2명 어지럼증 및 전신쇠약 등 온열질환 추정 증세 보여 병원 이송
	지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진그룹, 제주 지하수 증산 신청 조건부 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량 증량 신청(월 3000톤→4500톤) 조건부 가결 · 조건으로 신청량 일부 감량(월 4400톤) 및 지하수 영향조사서 보완 요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에 따른 기내 공급 수요 증가가 주된 증산 사유 - 시민사회단체, 한진 지하수 증산 규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진의 지하수 사유화 확대를 허용한 오영훈 도정을 규탄한다"며 성명 발표 · 제주 지하수 공공관리 원칙 훼손 및 대기업 특혜 의혹 제기.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 적극 대응 예고 - 지하수 공공관리 원칙 훼손 우려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시도는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으나 공공성 훼손 우려로 번번이 좌절 · 이번 조건부 가결로 지하수 공공관리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향후 제주도의회의 최종 결정에 이목 집중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부)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